

사회적 농업의 실천과 담론을 전하는

사이통신 8



차례

다양한 시선

- 7 사회적 농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김자경
- 15 사회적 농업과 관계된 완주군의 활동들 / 이효진

가꾸는 실천

- 27 사회적 농업, 한눈에 살펴보기
- 28 전북권 사회적 농업 농장&지역서비스공동체형 단체 안내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사업 소개

- 32 사회적 농업의 생태계를 확산해갑니다 / 이효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소개

- 41 농업을 통해 자립력을 키운다/ 홍진웅

사회적 농업 지역서비스공동체형 사업 소개

- 48 노인·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연대 / 임경화

나누는 공부

- 59 치매와 돌봄농업 / 김정섭

- 73 전하는 소식



다양한 시선

사회적 농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김자경

사회적 농업과 관계된 완주군의 활동들 / 이효진



사회적 농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 하나의 서학西學에서 농업·농촌의 대안으로

김자경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한국 농업·농촌의 현실과 대안 먹거리 운동

농업 노동력의 부족, 농업 재생산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된 농산물 가격, 비싼 농자재 가격, 농가 부채,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농촌 지역의 사회서비스와 문화시설의 부족,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의 위기 등 한국의 농업·농촌의 문제는 매우 다양하다. 농업·농촌이 돌이킬 수 없는 소멸의 길에 접어든 것처럼 인식되는 ‘지방소멸’이라는 단어가 회자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은 먹거리 사재기가 없었으며 밀키트(meal kit)와 배달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먹거리체

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먹거리 위기는 점차 커지고 있다. 이미 소비자들의 머릿속에는 먹거리체계의 기반인 농업·농촌이 지워졌는지도 모른다.

1970년대 녹색혁명을 거치며 드러난 농업·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려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생명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대안농업 운동이 시작되었다. 대안농업 운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생협 운동, 유기농업 운동, 학교급식 운동 등은 제도로 정착되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 운동은 세계 식량체제를 지역 식량체제로 전환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를 재구축하는 방향으로 느리지만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2000년대에 등장한 개념이 로컬푸드local food다. 로컬푸드 운동은 제철 먹거리를 지역에서 생산·소비하자는 것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농업·농촌에 정착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공동체지원농업CSA은 꾸러미 사업으로 수렴되었고, 로컬푸드는 직매장 수는 증가했지만 농협에서 추진했던 제2의 신토불이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될 정도로 부실한 운영 사례가 다수 보인다. 여기에다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는 기후위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신자유주의를 강화하는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새로운 외부 질서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 농민과 소비자는 가까워지지 못했고, 코로나19를 계기로 그 사이에 배달 앱이 하나 더 들어온 것이 현실이다.

사회적 농업, 또 하나의 서학西學?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회적 농업이 새로운 대안 개념으로 등장했다. 이는 선진 외국에서 들어온 또 하나의 ‘서학西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바로 로컬푸드 운동의 경험 속에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컬푸드 개념이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나자 푸드플랜food plan 수립을 위한 용역만 전국 농촌을 휩쓸었다. 제주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협이 개설한 곳 외에는 거의 폐점을 했고, 이제 생협에서 운영하는 한 곳만 남았다.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농산물만 보더라도 운영이 부실하단 걸 바로 알 수 있다. 로컬푸드 운동을 통해 제주의 먹거리체계를 전환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균열조차 내지 못한다.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사회적 농업 조례가 제정되면서, 농림부 지정 사회적 농장 세 곳과 제주도 지정 사회적 농장 세 곳이 탄생했다. 제주도청은 2018년 12월~2019년 7월 제주형 사회적 농업 구축 태스크포스Task Force, TF팀을 운영했지만, 농민들은 사회적 농업 조례의 제정 경위를 알 수 없었다. 사회적 농업 조례 제정과 관련된 어떤 공론장도 없었다. 사회적 농업에 관한 개념적·실천적 정의를 논의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이다.

로컬푸드라 쓰고 지역산 제철 먹거리라 읽는데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농업을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매우

크다. 농업·농촌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농업을 해석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부분이 태산 같다. 농촌 마을공동체가 빠르게 해체되고 있으며, 산업적 측면에서도 농업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혹시나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면 ‘업業’으로서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고,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로컬푸드도 그렇게 솔깃한 말로 시작되었다. 로컬푸드를 실천하면 지역경제가 순환하고,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된다고.

사회적 농업 해석하기 1: 농업 활동의 범위

제주도를 시작으로 서울시, 경상북도, 전라북도 등에서 사회적 농업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 근거가 되는 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다. 사회적 농업 육성 조례에 관한 법률 근거는 이 두 가지로 나뉜다.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목적에는 공통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가 들어있다. 사회적 농업의 지향점을 어느 정도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농업 조례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사회적 농업은 농업의 기능이나 활동을 통해 일자리나 교육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문제는 농업 활동의 범위

를 생산에 제한하지 않고 농산물 가공·포장·판매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미 자활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은 장애인을 고용해 다양한 농산물 가공식품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들의 활동은 어떤 점에서 사회적 농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또는 왜 사회적 농업이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적 농업 해석하기 2: 인식의 격차

사회적 농장에게는 공통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쉽게 일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장 구조가 요구된다. 구조를 갖춘 농장은 지역사회와 쉽게 연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적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이하다. 농한기 동안 사회적 농업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양한 인증으로 농장의 가치를 높이려는 곳도 있을 수 있다. 도농교류를 진행한 경험이 있어서 선뜻 나서는 농장도 있을 수 있다. 원래 대안농업 운동을 했고,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입한 농장도 있을 수 있다. 즉 사회적 농업은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회적 농장이 운영하는 농장 프로그램에서 ‘발달장애인이 농장에 와서 농장 한바퀴를 같이 걸었다’라는 게 농업·농촌의 전환을 위한 어

면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농업 해석하기 3: 돌봄의 사회화 또는 시장화

정부에서는 2018년에 개별 사회적 농장을 지원하다 2020년에 거점 농장을 지원하고, 2022년에는 지역서비스공동체형 사업을 새롭게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지역서비스공동체형 사업의 경우, 해당 농촌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농촌이라는 공간이 실제 농민이 거주하는 마을과는 별개가 될 수 있다는 지점이 우려된다. 농촌 자원은 상당수 면 단위 존재하고, 농민이 거주하는 리 단위에서는 농장체험 프로그램 정도로 결합해버리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면서 '돌봄의 사회화'라 미화될 여지가 크다.

농촌 지역 복지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는 정확하게 복지제도 영역에서 수행하면 된다. 그런데 지역서비스공동체형 사업에 들어가 지 못하는 농장은 자신의 삶터에 어떤 영향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를 예상해보면 지역서비스공동체형 사업은 사회적 농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바우처 발급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는 개별 바우처 수혜자가 사회적 농장을 선택하는 게 될 것이다. 돌봄의 사회화는 '돌봄의 시장화'로 진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6차 산업에 '복지'라는 업

종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되지 않기를 바란다.

사회적 농업, 농업·농촌의 대안으로 나아가기

농촌공동체의 활성화 측면에서 다양한 주체가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써 사회적 농업을 생각해본다. 과거 생계 경제 시절에는 농촌 마을의 기능으로 생활·경제·신앙·교육·돌봄공동체 등이 있었다. 처음에는 농촌에서 사회적 농업을 하게 되면 돌봄공동체가 만들어질까 생각해봤지만, 지금은 교육·경제·돌봄공동체의 복합적 기능이 작동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농촌의 행사에 참석하면 어르신들은 항상 자식 자랑을 한다. 우리 아이는 육지나 서울에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집이나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농촌의 공동화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을까. '업'으로 생계를 꾸려기 어려워 자식만큼은 고생을 시키지 않으려 했던 것이리라. 마을에서 공동으로 치뤘던 장례문화는 이미 병원이나 농협의 장례식장으로 넘어갔고, 생활공동체는 붕괴되었다. 이런 농촌 현실은 '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농업의 위기이며, 농업의 위기는 농촌의 공동화로 직결되었다고 본다.

이미 농촌의 마을공동체는 쇠퇴했다. 여기에 5년간의 예산 지원이

무엇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사회적 농업으로 사람이 모이고, 혁신을 꾀할 수는 있겠지만, 로컬푸드 운동 경험을 보았을 때 미리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 아직 농업·농촌 연구자들이 그동안의 대안농업 운동을 철저하게 되돌아보는 자리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농업·농촌 현실에 대한 진단은 비슷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서 한 달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제공되던 식사가 멈추고, 이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 '서로 돌봄'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을 정도다. 현재 농촌의 다수 사람들은 과거 마을에서 돌봄을 어떻게 서로 나누면서 살았는지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사회적 농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공동체가 활성화되었으면 하지만, 실제 정책의 성과로서 지표화되는 것은 정량적인 돌봄, 교육·일자리의 횡수와 같은 수치뿐이다. 로컬푸드에서 농민과 소비자의 관계 회복을 그토록 강조했건만, 관계 시장의 형성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농촌에서 사회적 농업을 계기로 농업과 복지가 만나보자 하지만, 결국 돌봄서비스의 제공자로서의 농민과 수혜자로서의 장애인 이 만나게 될 우려가 높다. 돌봄의 시장화와 돌봄 운동의 사이에서 사회적 농업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의 현재를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사회적 농업과 관계된 완주군의 활동들

한 사람의 열 걸음 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이효진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이사

지난 7월 경주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사회적 농업 성과공유회>가 있었다. 사회적 농업 실행 5년차를 맞아, 그동안 현장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 완사넷으로 약칭)에서는 사회적 농업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아동 발달장애인과 부모, 성인 발달장애인, 농장 활동을 함께하는 사회적기업 대표, 지역서비스공동체형 코디네이터가 함께했다. 당사자인 이들이 사회적 농업에 참여했던 과정과 변화, 앞으로의 계획 등

을 이야기했다. 각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농업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고, 이 활동을 지속해가려는 의지를 보였다.

완주는 6개의 사회적 농장에서 226명의 사회적 약자가 참여하고 있다. 8명의 사회복지 및 장애인 고용 관련 대표, 그리고 사회적 농업 전담 인력 5명, 농업을 도와주는 지역 주민 30여 명, 활동을 도와주는 강사 30여 명으로, 약 300여 명이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주체가 서로 사회적 농업으로 연결되어, 영역을 확대해가면서 사회적 농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완주가 사회적 농업을 확산해왔던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공모사업, 다같이 참여하는 방법을 찾자

완주군은 2018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사회적 농업에 첫 발을 내딛었다. 공모사업 접수에 앞서, 완주군 내의 사회적 농업을 하려는 민간조직과 완주군 내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이 한 데 모였다.

“사회적 농업은 앞으로 농촌이 가야 할 방향인데, 농장 한두 군데 지원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자. 완주군 전체를 놓고 사회적 농업을 확산하는 방향을 찾자. 그러려면, 여러 조직을 연계할 수 있는 완주사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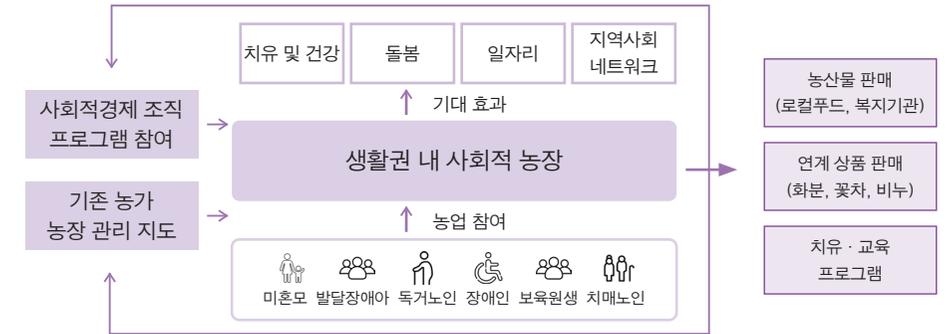


그림 1 완주군 사회적 농업 추진체계.

경제네트워크에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에 공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협의한 후, 완사넷에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사회적 농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완주는 당초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농업을 추진했다.

방향을 맞추려면, 공부도 함께하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후,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진행할지 관련자가 함께 모여 논의를 했다. 완주군청 사회복지

과, 농업축산과, 사회적경제과, 읍면복지팀, 청년 협동조합, 농부, 마을 리더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연계할 방법을 찾았다.

논의 과정에서 우리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함께 일하려면 사회적 농업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회의에 참여한 행정·중간지원조직·민간조직이 함께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충청남도 홍성군의 협동조합 행복농장과 전라남도 영광군의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을 견학하고, 완주의 사회적 농업의 방향과 역할을 함께 모색했다.

역할을 나누고 민관이 협력해서 일한다

완사넷의 사회적 농업을 통해 추진하는 지향은 지역사회 내에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여러 기관이 역할을 나누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종종 주변에서 행사를 사업비가 많냐는 오해를 사기도 한다. 사실 사업비 자체는 많지 않다. 다만 사업 추진 시에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진행하니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홍보가 많이 되어 행사가 크게 알려지게 되었다.

독거노인 김장나눔 행사를 예로 들면, 이 행사를 위해 민과관, 중간



사진 1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

지원조직 등 8개 기관이 협력했다.

경천면 오복두레농장에서 농장을 제공·관리를 해주었고, 소비자단체인 (사)세상을바꾸는밥상은 파종·수확·김장을 함께했다. 안심농자재협동조합은 친환경 방재를 진행했고, 반찬공동체 농가의부엌은 배추 절임과 양념 준비, 식사 준비를 했다. 완주군청 사회복지과에서는 김장김치를 배포할 독거노인 대상자를 선정했다.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는 탐차로 김장김치를 배송해주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각 독거노인 100분께 가정마다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완사넷은 사업 추진을 연계했으며, 각 조직에게 사업을 제안하고 협력을 구했다.

판로 확보 연계

완주는 사회적 농업을 시작할 때, 세 가지 실천 과제를 만들었다. 첫 번째는 사회적 농장 거점별 조성, 두 번째는 지역 내 협력적 소비체계 구축, 세 번째는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이다.

두 번째 과제인 협력적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 내 여러 조직과 연계했다. 먼저, 농산물 판매를 위해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과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와 협력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구축을 모색했다. 그리고 농산물 소비에 사회복지기관들이 동참해주었고, 소비자단체인 (사)세상을바꾸는밥상도 협력했다.

안정적인 판로 구축을 위해서 공산품을 제작·판매하기도 했다. 더불어해봄의 꽃차를 원료로 사회적기업인 (유)꽃님이숍에서 비누를 제작하고, 지구살림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제로웨이스트숍에서 판매를 했다.

행정에서도 협조해주었는데, 사회적 농업 생산물을 완주군청 구내 식당에 납품했다. 군청 공무원의 먹는 소비로 사회적 농장을 응원한 셈이다.



사진 2 완주군 장애인분과 포럼.

장애인분과에서 사회적 농업을 모색하다

완주군은 완사넷 주관으로 분야별 간담회를 추진한다. 2018년 결성된 장애인분과는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등 장애인 관련 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해 완주군 내 장애인의 삶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논의들을 이어가고 있다.

이 분과에서는 2019년 <완주군 장애인 일자리 욕구와 일상생활력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완주군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장애인 당사자가 일상에서 느끼는 만족도와 일자리에 대한 욕구를 조사했다. 장애인분과에 참여하는 기관 대표자들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직접 설문 설계를 하고, 조사를 추진했다.

이 조사는 8개월 동안 추진되었으며, 조사결과를 함께 정리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최종 보고회에서 <완주군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 여섯 가지를 도출 하였다. 이 과제의 두 번째로 '취업교육 욕구에 따른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회적 농업 접근방향 모색'을 제시했다. 사회적 농업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추진해야 될 과제, 즉 당사자들의 문제가 된 것이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인 설립

완주군은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면서 두 개의 법인을 설립했다. 첫 번째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키울협동조합이며, 두 번째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 협력해서 만든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해봄(이하 더불어해봄으로 약칭)이다.

키울협동조합은 '아이를 키우고, 작물을 키우고, 꿈을 키운다'라는 뜻이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사회적 농업을 통해서 서로 연대하고,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여가 활동을 하고, 진로 탐색을 할 수 있게 사회적 농장을 지속한다.

더불어해봄은 소양면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사진 3 <완주 사회적 농업 한마당> 단체 사진.

목적으로 활동한다. 성인 장애인의 용돈 마련을 위한 농장 활동을 시작으로, 지역 보육원과 노인들까지 참여자를 확대했다. 올해는 근로 장애인들의 여가 활동과 다문화 가족의 농장 활동을 진행한다. 농장 활동을 시작으로 식생활 개선을 위한 요리 활동, 반찬 나눔 활동, 한의원과 연계한 어르신 건강 돌봄 활동을 확대했다. 향후 노인 주택 수리 활동과 어르신 일자리 연계 등으로 확장해가려 한다.

키울협동조합과 더불어해봄은 법인을 설립해 자체적으로 사회적 농장을 실행하고,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며 추진해가고 있다.

지역사회 돌봄 연대의 디딤돌

사회적 농업을 추진하면서, 우리는 어느 사업보다 협력적으로 연대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좋은 분들이 많이 동참했고, 내 일처럼 열심히 협력했다. 농업이 주는 협동의 힘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열의가 협력을 촉진한 게 아닐까.

사회적 약자도 갈 곳과 할 일을 찾았고, 주민들도 그들을 직접 만나면서 진정으로 해야 할 역할도 찾게 되었다. 힘을 모아 조직을 만들고, 하나씩 성과를 만들어가며 서로를 지탱하는 탄탄한 연대를 만들었다.

이러한 네트워크로 하나의 조직에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협력적으로 사회적 농업의 체계를 확산하게 되었다. 완주군은 여러 조직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 힘으로 사회적 농업을 지속해갈 것이다.

한 사람의 열 걸음 보다 열 사람의 한걸음으로!

가꾸는 실천

사회적 농업, 한눈에 살펴보기

전북권 사회적 농업 농장&지역서비스공동체형 단체 안내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사업 소개

사회적 농업의 생태계를 확산해갑니다 / 이효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소개

농업을 통해 자립력을 키웁니다 / 홍진웅

사회적 농업 지역서비스공동체형 사업 소개

노인·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연대 / 임경화

사회적 농업, 한눈에 살펴보기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2018년도 9곳을 시작으로 2022년도 현재 전국에 총 83곳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농업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을 토대로 한 돌봄과 교육, 일자리 제공 등을 실천함으로써 건강한 농촌 지역공동체를 가꾸어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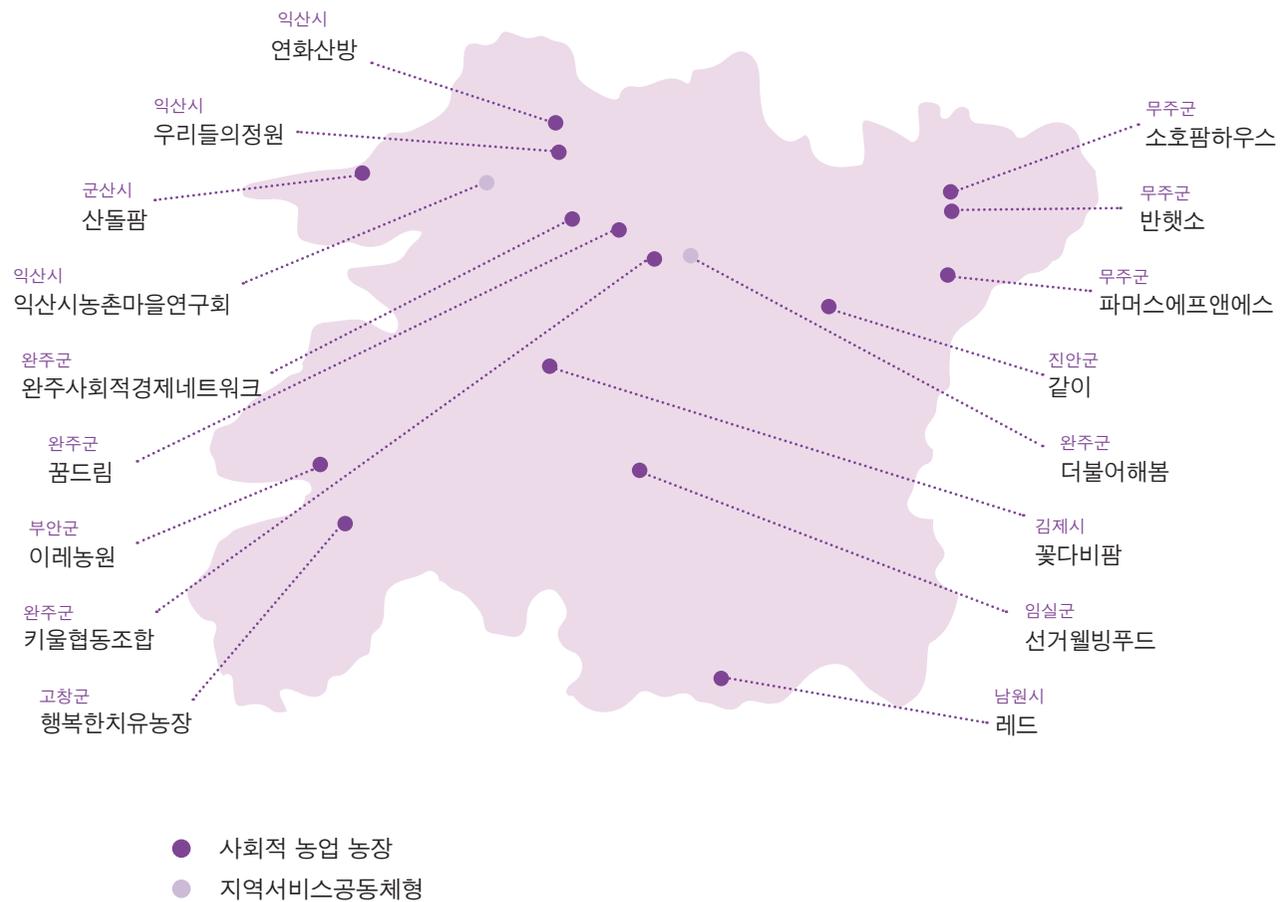
◆ 지역서비스공동체형

2022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총 22개의 지역서비스공동체형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서비스공동체형은 공동체 단위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과 관련 단체에게 도움을 주는 유형입니다. 지역의 코디네이터가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농촌 주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도움을 파악해 지역사회 안의 농장이나 사회·복지자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역할을 합니다.

◆ 거점농장

2020년에 전국의 4개 거점농장을 시작으로 2022년도 현재 7개(경기·인천, 대전·충남, 세종·충북, 전남, 경남·경북·울산, 강원, 전북)의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이 있습니다. 거점농장은 각 권역에 위치해 있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받는 농장과 지역서비스공동체형 실무자가 함께 만나 상호학습과 교류를 촉진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거점 내 사회적 농업 실천을 지원·자문하고, 교육·연구·홍보 활동과 함께 관련 분야의 협력을 도모합니다.

전북권 사회적 농업 농장 & 지역서비스공동체형 단체 안내



전북권 사회적 농업 농장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거점)

☎ 이효진
 ✉ jbsocialfarm@naver.com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나들목로 338-33
 🗺️ 노인, 아동청소년, 귀농·귀촌자
 🌿 엽채류, 감자, 메주콩, 배추, 무, 고추, 오이, 토마토, 옥수수, 단호박

산돌팜

☎ 홍진웅
 ✉ sandollfarm@gmail.com
 🏠 전북 군산시 성산면 여방1길 107
 🗺️ 발달장애인, 고령자
 🌿 딸기, 꼬꼬마양배추

레드

☎ 최희진
 ✉ red00818@daum.net
 🗺️ 전북 남원시 주생면 요천로 957
 ☎ 장애인, 고령자
 🌿 딸기, 포도

행복한치유농장

☎ 원점순
 ✉ sunwoo320@hanmail.net
 🏠 전북 고창군 성내면 외옥길 45-11
 🗺️ 장애인, 고령자
 🌿 고추, 수박

꽃다비팜

☎ 임금옥
 ✉ lim0940@hanmail.net
 🏠 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산2길 157
 🗺️ 장애인, 고령자
 🌿 화훼

반햇소

☎ 전병술
 ✉ bhshnc@naver.com
 🏠 전북 무주군 적상면 적상산로 3
 🗺️ 장애인
 🌿 감자, 고구마, 상추, 고추, 깻잎, 오이, 옥수수, 땅콩

소호팜하우스

- ☎ 선수진
- ✉ sqtjstnwls@naver.com
- 🏠 전북 무주군 안성면 안성로 81-11
- 🌿 청년
- 🌿 블루베리, 산머루

이레농원

- ☎ 박연미
- ✉ p3224567@naver.com
- 🏠 전북 부안군 보안면 청자로 1483-43
- 🌿 청년
- 🌿 뽕나무, 오디, 상지, 누에, 뽕잎

키울협동조합

- ☎ 최대회
- ✉ choidayzi@naver.com
- 🏠 전북 완주군 봉동읍 구미1길 49-60
- 🌿 발달장애 아동 가족
- 🌿 엽채류, 감자, 대파, 수세미

우리들의정원

- ☎ 이경의
- ✉ wflower7388@naver.com
- 🏠 전북 익산시 삼기면 미륵사지로 534
- 🌿 장애인, 고령자
- 🌿 엘더플라워, 허브

파머스에프앤에스

- ☎ 김동영
- ✉ farmersfns@naver.com
- 🏠 전북 무주군 무풍면 지성길 209-52
- 🌿 청년, 지역 아동
- 🌿 블루베리

꿈드림

- ☎ 정선진
- ✉ jsj0243@hanmail.net
- 🏠 전북 완주군 용진읍 하이1길 52-5
- 🌿 발달장애 가족
- 🌿 단호박, 감자, 고구마, 유자, 레몬, 만감류, 엽채류

연화산방

- ☎ 유성남
- ✉ 6700135@hanmail.net
- 🏠 전북 익산시 낭산면 성남신리길 43
- 🌿 아동(발달장애, 지역)
- 🌿 녹차, 꽃, 감자, 상추, 허브, 토마토

선거웰빙푸드

- ☎ 박미
- ✉ mire5525@hanmail.net
- 🏠 전북 임실군 운암면 지천길 3
- 🌿 장애인, 고령자
- 🌿 흰민들레, 라임라이트, 작두콩, 양파, 고추, 고구마

같이

- ☎ 이주영
- ✉ hapupuha@hanmail.net
- 🏠 전북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515-5
- 🌿 장애인, 고령자
- 🌿 울외, 허브, 도라지, 더덕,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전북권 지역서비스공동체형 단체

더불어해봄

- ☎ 임평화
- ✉ iph@daum.net
- 🏠 전북 완주군 소양면 원암로 164-19
- 🌿 장애인, 고령자
- 🌿 감자, 옥수수, 작두콩, 메리골드 꽃

익산시농촌마을연구회

- ☎ 노청래
- ✉ roh1729@korea.kr
- 🏠 전북 익산시 오산면 만하길 105
- 🌿 장애인, 고령자
- 🌿 상추, 배추, 콜라비, 양배추

사회적 농업의 생태계를 확산해갑니다

전라북도 거점농장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효진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이사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소개

완주군은 2010년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종합 전략인 ‘약속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완주군은 <로컬푸드 활성화 및 주민 공동체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 10년 정책 성과로 완주군에는 300여 개에 달하는 주민공동체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관 주도로 육성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립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조직 간의 연대·협력이, 행정과는 협력적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연대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7년 민간 전문가 포럼과 주민 간담회를 통해 논의가 구체화되었다. 그 결과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이 출자한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 완사넷)’가 탄생했다. 현재 조합원은 85개소에 달하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농업 활동 추진

완사넷은 지역 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회적 농업에 참여할 주체를 발굴하고, 그 주체가 농사지을 수 있는 농장을 연계한다. 그리고 농사법을 지도하고 도울 수 있는 조력자와 농장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주민 강사를 연계한다. 또한, 지역의 협력적 소비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복지기관 등의 소비처를 발굴하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한 조직에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서로 협력하며 사회적 농업의 체계를 확산하는 게 완주군 사회적 농업의 특징이다.

6개 농장으로 확대

2018년부터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면서 유대 관계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자 했던 아동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아이를 키우고, 작물을 키우고, 꿈을 키운다’라는 뜻의 ‘키울협동조합’을 설립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에 지원해 사업비를 지원받아 ‘은혜의 농장’을 꾸려가게 되었다.

2019년 뇌병변 장애인 거주시설 ‘은혜의 동산’에 거주하던 장애인들의 여가 활용과 용돈 벌이를 위해 사회적 농업을 시작했다. 사회적 농업을 통해 용돈 벌이를 시작했고, 참여자의 만족도도 높았다. 그리고 지역사회 보육원 아이들과 지역 노인까지 참여자를 넓혀 갔다.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해봄’을 설립하고, 2022년 지역서비스공동체형 사업에 선정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완주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조직화해 사회적 농업을 확산해나갔다.

전라북도 거점농장 선정

완사넷은 2022년 전북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에 선정되었다. 그동안 완주에서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전라



그림 1 완주군 사회적 농업 농장 현황(6개소, 2022년 기준).

북도 내의 사회적 농장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세 명의 전담 인력을 고용해, 거점농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2022년 주요 거점농장 활동

찾아가는 사회적 농업 설명회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누구나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찾아가는 사회적 농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라북도 어느 지역



그림 2 <찾아가는 사회적 농업 설명회> 모집 포스터.



그림 3 <사회적 농업 스테디 모임> 모집 포스터.



그림 4 『전라북도 사회적 농업 이야기』.

이든 사회적 농업에 관심 있는 농민이나 사회복지기관 등 5명 이상 모이면 찾아가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 사회적 농업에 대한 개념과 사례,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까지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 스테디 모임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업무를 수행할 때, 업무 담당자들이 사회적 농업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

확산을 위해 <사회적 농업 스테디 모임>을 구성했다. 전라북도 사회적 농장과 사회적 농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홍보를 해 15명이 함께 사회적 농업 스테디를 시작했다. 스테디 모임에서는 해외의 사회적 농업 사례 논문을 함께 읽고, 토론한다.

전라북도 사회적 농업 소개 책자 제작

2022년 거점농장 상반기 모니터링을 다니면서, 농장 방문 시 취재 기자와 촬영 기사와 함께 동행했다. 각 농장의 이야기와 활동 사진을 기록·정리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17개소 사회적 농장(2개 지

역서비스공동체형 포함)을 소개했다.

사회적 농업 성과 정량 평가

사회적 농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성과 검증도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농업의 성과를 정량 지표로 보일 수 있는 조사표를 개발하고, 대상자 조사를 추진한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자문·협력을 통해 사회적 농업 참여자와 활동가 및 농가의 사회적 농업 참여 전후의 만족도나 신체적·정서적 개선을 정량 지표로 측정한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농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보다 논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농업 선진지 견학

사회적 농업 참여 주체들의 역량을 높이고, 상호 네트워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한다. 2022년에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1박 2일 방문을 추진했다. 전라북도 사회적 농장 곳곳에서 2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관람, 사회적 농업 성과공유회 참여, 상호 네트워킹 행사 등을 가졌다.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지원

사회적 농업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농업에 대해 실



사진 1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선진지 견학.

질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 네트워킹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수행도 필요하다. 따라서 예비 사회적 농장에게 시범사업비를 지원해, 사회적 농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 농업을 연습해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인 준비를 할 수 있다.

네트워킹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내 협력기관 네트워킹 회의를 진행한다. 사회적 농업 참여 실무자 네트워킹과 사회적 농업 사업 담당 공무원 네트워킹을 추진했다. 앞으

로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네트워킹까지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모니터링·홍보

전라북도 사회적 농장 15개소와 지역서비스공동체형 2개소의 농장 활동 현황을 수시 점검한다. 농장 방문 시에는 상담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정리해내는 것도 거점농장의 역할이다. 전라북도 사회적 농업 블로그를 개설해 활동을 기록하고 홍보한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사회적 농장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올해는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부스를 통합 운영했다.

향후 계획

향후에는 전라북도 거점농장을 통해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좀 더 밀도 있는 네트워킹을 진행하려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상호 협력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대해가고자 한다. 전라북도 사회적 농업 생태계를 확대하고, 보다 단단하게 구축해가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소개

농업을 통해 자립력을 기른다

농업회사법인 (유)산돌팍

홍진웅

농업회사법인 (유)산돌팍 대표

싱그러운 딸기향으로 가득한 딸기하우스 안에서는 ‘농업회사법인 (유)산돌팍(이하 산돌팍으로 약칭)’ 농장 사총사가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들은 산돌팍의 직원인 청년 발달장애인들로 직업지도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다소 느리고 서툴지만 농장에서 제 몫을 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산돌팍의 1호 직원 전태준 씨는 농장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먼저 다가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직접 수확한 딸기를 씻어서 대접하기도 한다. 산돌팍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직업교육의 장이다.



사진 1 산돌팍에서 농업을 배우는 청년 발달장애인.

장애인들이 일터에 가는 꿈을 이루다

산돌팍은 발달장애 대안학교인 '산돌학교'에서 시작됐다. 산돌학교는 2007년 개교했고, 나는 산돌학교의 교장으로 일했다. 산돌학교는 처음에 초·중등학교로 시작했다. 그런데 졸업한 20대 청년들이 갈 곳이 없었다. 이 친구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족이 돌봄의 짐을 지게 된다. 그러면 가족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산돌학교의 초·중등생이 청년으로 성장하고 난 후 겪게 될 삶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던 중, 사회적 농업을 알게 되었다. 이후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2021년 사회적 농업 농장에 선정되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



사진 2 딸기 농장에서 노인들과 함께 일하는 발달장애인.

로그래를 연계·진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은 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어서도 사회로 나아가는 경우가 드물다. 돌봄은 가정이나 또 다른 시설의 몫이 되기 쉽다. 발달장애인들은 조금만 쉬어도 기능이 쉽게 퇴행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이 특히 중요하다. 장애인에게 직업은 단순한 경제활동의 의미 그 이상이다. 스스로를 책임지고 있다는 값진 경험은 정서, 일상생활, 가족관계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속적인 평생교육으로 자립기반을 준비하고, '자립의 꽃'이라 불리는 직업훈련으로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 수 있다.

발달장애인들의 일터이자 평생학교

산돌팜은 2010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2017년에는 평생교육 범주 안에 장애인도 포함되어 직업교육을 통한 사회적 자립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장애인 일자리는 업무 효율보다는 자립에 초점을 맞춘다. 발달장애인의 일터로 농장을 선택한 이유 역시 아무리 좋은 일자리라도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농사일은 속도가 느려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잎이나 열매를 한두 개 더 따내고 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도 않는다. 산돌학교에서는 매년 농업교육과 주말농장을 운영했고, 이는 발달장애인의 정서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군산시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아 딸기 농사를 시작했지만 소득 창출이 활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장애인 표준 사업장 준비

“우리가 꿈을 꾸자. 아이들이 작업복을 입고 일터에 나가는 꿈을.”

산돌팜은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루작’이라는 브랜드를 개발



사진 3 산돌팜에서 운영하는 가공 공장.

해 꼬꼬마양배추를 주재료로 하고, 사과와 배합한 음료를 출하할 계획이다. 2022년 하반기에는 음료 가공 시설을 운영해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준비 중이다.

현재 산돌팜은 발달장애인 4명,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선생님 2명, 노인일자리 11명, 공장 담당자 1명, 하우스 담당자 1명을 고용 중이다. 2022년 하반기에 공장이 설립되면 6명을 추가로 고용할 예정이다. 산돌팜에 소속된 장애인은 일자리를 얻고, 저축을 하고, 부모에게 용돈도 드리고 있다. 산돌팜의 발달장애인은 산돌학교의 꾸준한 교육을 통해 버스 이용, 설거지, 빨래 등 일상생활을 누리고 농업 활동으로 경



사진 4 음료 가공 공장 내부.

제적인 능력도 갖춰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산돌팜은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속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연결고리 역할도 하고 있다. 농장을 운영하며 장애인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수익을 내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지역사회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기에 때때로 직면하는 크고 작은 문제는 지역사회의 도움으로 차분히 해결해나가고 있다. 군산시에서 인건비, 근로 지원 등을



사진 5 딸기 농장에서 딸기를 수확하는 청년 발달장애인.

받고 사회적협동조합 군산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협업해 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공동관로를 모색 중이다.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 도움 없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모두의 관심과 도움이 고맙다. 발달장애인이 시설에서 고립되는 모습이 아니라 일터를 매개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에 한데 어울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사회적 농업 지역사회서비스공동체형 사업 소개

노인·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해봄

임경화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해봄 코디네이터

지역공동체가 만나 꽃피우는 사회적 농업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해봄(이하 더불어해봄으로 약칭)’은 완주군 지역공동체가 한데 모여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여러 단체가 협력해 사회적 농장을 꾸린 만큼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며, 활동 범위 또한 폭 넓고, 농장과 기관 간 네트워킹도 활발하다. 활동 영역은 크게 세 개다. 완주떡메마을과 은혜의 동산에서 함께 하는 장애인 활동, 원암노인교실과 완주군가족센터에서 함께 하는 노인·다문화 활동, 완주지역



사진 1 더불어해봄 사회적 농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인 성인 장애인.

자활센터와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함께 하는 지역돌봄과 봉사 프로그램이다. 조합원으로 참여한 단체들은 번갈아가며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밖에 농장과 지역 고령인, 사회복지기관과 상호 교류를 통해 농업 환경 개선과 농업 기술의 전수 및 연대를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더불어해봄은 사회적 약자인 시설 장애인, 재가 독거노인, 보육원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을 실시해 대상자가 농촌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지역 활동을 통해 사회성을 길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를 꽃피우려 한다.



사진 2 예손한의원 연계 어르신 건강돌봄 활동.

농촌 지역 소외 이웃에게 서비스 제공

올해부터 시행된 지역서비스공동체형 사업은 지역사회 내에서 고령화·과소화되는 농촌 사회의 돌봄과 복지, 공동체 문화 복원에 목적을 두고 있다. 더불어해봄은 사회적 농업 농장인 ‘은혜의 농장’에서 농업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경력단절 어르신이나 재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 독거노인의 불규칙한 식생활 문제 개선을 위해 주변 취약계층 40여 명에게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반찬나눔을 하고 있다. 또한 원암노인교실에 소속된 고령 농업

인 50여 명을 위한 일주일에 한 번씩 농장 활동, 원예치료, 노래교실 등 심리적 안정을 돕는 여가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고령 농업인들에게는 농작물 생산에 필요한 농업 기술도 전수하고 있다.

또 더불어해봄은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이미용서비스 업체와 활발한 네트워킹으로 대상자들에게 건강하고 청결한 생활을 지원한다.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 소양면 예손한의원 등과 연계해 고령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돌봄사업도 펼치는 중이다. 이렇듯 마을 별로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면서 일어난 변화

사회적 농장을 시작하고 4년을 지나면서 참여자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처음 농장을 시작해야 하는 간절한 이유가 있었다. 은혜의 동산에서 만난 장애인 가운데 늘 반복되는 일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을 마주하는 분이 있었다. 그 분이 부정적인 일상을 벗어나게 하는 게 한 가지 이유였다. 또한 형편은 각자 다르지만 경제적으로 부족한 탓에 소극적이고 움츠러드는 분들도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농장을 시작해 소일거리가 생기고, 자연에서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던 환경이 주어지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그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했었지. 맞아 나를 위해서 그랬어”, “괜찮아, 다시 해볼거야”, “내가 도와줄까” 등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생기고, 과거의 상처를 받아들이며 치유하는 과정까지 이르는 걸 보았다. 또 조금의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웃음도 더 많아지고 농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농장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활동 전달 소원과 기도는 “내일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다. 물론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정해진 날은 거의 농장으로 출근한다.

또, 사회적 농장에서 만난 잊을 수 없는 보육원 친구가 둘 있다. 한 아이는 농장 활동 첫날에 하얀 바지·셔츠·양말·슬리퍼를 입고 온 흰색 마니아 친구다. 옷과 슬리퍼에 흙이 묻기라도 할까봐 처음 활동 시간에는 구경꾼으로 있었다. 그 친구는 다음 차수에 운동화를 신고 오고, 그 다음엔 작업복을 입고 와서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 다른 친구는 엄마와 단 둘이 살다 보육원에 맡겨진 남자 아이였다. 딸아이와 나이가 비슷해서 마음도 아프고 더 정이 갔다. 처음 원에 활동 시간에 어려운 작업 과정이 있어서 판에는 특별하게 마음을 써 도와준다는 것이 오히려 화를 불러 일으켰다. 자기를 무시했다며, 계획이 있었는데 왜 선생님 마음대로 했느냐고 불같이 화를 냈다. 모든 활동을 거부하는 바람에 참 난감했다. 그런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농장 활동을 함께 하고, 슬며시 다가와 손을 잡고 신상 변화나 고민거



사진 3 독거 어르신 반찬봉사 활동.

리를 나누었다. 또, 농장의 어르신들께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손자처럼 다정하게 구는 것을 보았다. 사회적 농장에서 농사라는 매개체가 만들어내는 가치와 힘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며 농장에 또 하나의 방향성을 세우게 됐다. 우리 농장은 사랑과 정이 고된 친구에게 외갓집이 되어주어야겠다고.

사회적 농장 참여자로 만난 독거 어르신과 고령 농업인은 어린 시절 나와 친구들을 키워내신 분들이다. 딸기 따는 법, 냇가에서 빨래하는 법과 송사리 잡는 법을 가르쳐주신 선생님입니다. 이분들이 세월이 흘러 이제는 자식같은 내게 원에 활동과 요리 활동을 배워야 하는



사진 4 메리골드가 심겨진 더불어해봄 농장 전경.

학생이 되었다. 지역 형편상 대부분 어르신들은 치열한 삶의 자리를 지키느라 취미나 차 한잔의 여유도 모른 채 꼬부라진 허리와 떨리는 손을 갖게 되었다.

어르신들은 노인학교라고 하니, 어릴 적에 못 다녀본 학교를 나이 들어서 다닌다고 좋아하셨다. 원에 수업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우리 손주가 하는 건 봤는 난 처음이야”라고 하시며 어찌나 기뻐하시던지. 어떤 분은 “내가 착하게 살았나봐 이렇게 복받는 걸 보니...”라며 울먹이셨다.

적은 비용을 투자해 이 마을의 어버이들을 이처럼 행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참 보람차고 가치있는 활동이다. 참여하셨던 어르신들이 가는 곳마다 노인학교를 어찌나 자랑하시는지, 처음 20명 정원이었던 목표가 벌써 50명으로 늘었고, 대기자도 생길 정도다.

향후 계획과 바람

더불어해봄은 소외되었던 사회적 약자들이 당당한 지역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농업을 통한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해봄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나누는 행복을 더 많이 누리길 소원한다. 우리나라의 뿌리가 되어준 농촌처럼 지역을 지키고 행복하게 하는 일을 위해 사회적 농장을 근간으로 더 많은 지역을 섬기는 일을 해 나가려 한다.

처음에는 노인학교를 통해 여가 활동의 기회를 드리려는 생각을 했는데, 점차 식생활과 건강까지 챙기는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앞으로는 주택환경개선 사업과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사업, 작은 목욕탕과 작은 영화관 운영까지 확대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꿈이다.

농촌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없어졌다고들 한다. 우리 농장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살아있다. 그래서 지역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더

불어해봄'이라는 농장 이름대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더불어 함께 해 볼 수 있는 농장이 됐으면 좋겠다.

나누는 공부

치매와 돌봄농업 / 김정섭



치매와 돌봄농업[◆]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론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에서는 치매질환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되던 종래의 치매 돌봄dementia care 모델에 결점이 있다는 인식이 커

◆ 이 글은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의 연구자들이 발표한 논문 『치매가 있는 이들을 위한 돌봄농업*Care Farming for People with Demetia*』을 발췌·번역한 것입니다. 원문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Bruin, S. R de., Pedersen, I., Eriksen, S., Hassink, J., Vaandrager, L., and Patil G. G.(2020). 『*Care Farming for People with Dementia; What Can Healthcare Leaders Learn from This*

지고 있다. 치매 돌봄이 질환자의 신체 건강만 우선시할 게 아니라 심리사회적 필요(psychosocial needs)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심리사회적 돌봄이라는 접근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을 중심에 두는 돌봄 환경이라는 개념이다. 개인을 중심에 두는 돌봄 환경이란, 첫째,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는 돌봄 환경이다. 둘째, 한 사람의 웰빙(wellbeing), 삶의 질, 존엄, 삶의 의미에 주의를 기울이는 돌봄 환경이다.

치매 돌봄에 있어 다양한 접근방법이 중시되며 혁신적인 접근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자연에 바탕을 둔 활동 및 서비스가 주목받는다. 오감(五感)으로 느낄 수 있는 정원, 원예치료, 시설 환경 안에서의 자연적 요소(가령, 식물), 지역의 녹색 공간(가령, 숲) 등을 활용하는 것이 ‘자연에 바탕을 둔 치매 돌봄’의 예로 거론된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에서는 ‘돌봄농업(care farming)’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에 바탕을 둔 치매 돌봄’ 접근방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돌봄농장이란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및 지원서비스와 농업 활동을 결합한 농장을 말한다.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젊은이, 치매질환자 등이 그 ‘대상’이다.

돌봄농업이라는 개념이 네덜란드나 노르웨이 외에도 여러 나라, 독

Innovative Care Concept?’, Journal of Healthcare Leadership, 12: 11-18.]

일·오스트리아·영국·일본·한국·미국 등에서 사용되지만, 혁신적인 치매 돌봄 접근방법이라는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구하는 일에서는 여전히 네덜란드와 노르웨이가 앞서가는 주자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에서는 돌봄농장에서 치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돌봄농장의 돌봄 환경은 어떤 모습인가

네덜란드나 노르웨이에서 돌봄농장은 대체로 상업적 목적하에 경영되는 농장에 보건서비스, 교육서비스, 사회서비스 등을 결합한 형태로 존재한다. 영농 활동과 그런 ‘서비스’의 상대적 비율은 돌봄농장마다 크게 차이가 난다. 영농 활동의 유형도 다양하며, 이들 돌봄농장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집단의 유형도 다양하다. 농업인과 농장 직원 중에는 농업교육, 보건, 사회적 돌봄(간호사,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등) 등의 분야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다. 돌봄서비스 제공을 돕는 자원봉사자를 둔 농장들도 있다. 네덜란드에서 치매질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농장 중에는 법률이 인정한 치매돌봄기관(예: 요양원)과 협력하거나 치매 돌봄기관 종사자를 고용한 경우도 많다.

돌봄농장에는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환경적 특성이 다양하게 있

다. 실외공간(예: 농장 안마당, 채소를 가꾸는 텃밭, 방목장), 농장, 가축, 식물, 일상적인 자극 요인, 친숙하고 집 같은 환경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농장 환경에서는 이처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특징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돌봄농장이 치매질환자에게 제안하는 다양한 활동에서 그런 요소들이 활용된다. 치매질환자에게는 자극을 주면서 의미 있는 활동이 제안된다. 야외 걷기, 실내 원예 활동, 식사 준비, 가축 먹이주기 또는 관찰하기, 계란 줍기, 텃밭 가꾸기, 마당 청소하기, 목공, 게임하기 등이 이루어진다.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돌봄농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활동을 조정하거나 신체적 노력이 덜 필요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돌봄농장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연속적으로 접할 수 있다. 이는 여러 개의 활동이 일상적인 농장 활동에서 유래한 것이며 치매질환자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야 하는 종류의 활동이 아님을 뜻한다. 이런 활동들은 오히려 보통의 농장 생활에서 그 일부분으로 수행하는 것들이다. 바로 이 지점이 정규적인 치매 돌봄 환경과는 다른 부분이다. 정규적인 치매 돌봄 환경에서는 일상생활이 시설환경을 중심에 놓고 조직되며, 시설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그리하여 돌봄농장이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활동이 되기 쉽다. 가령, 퀴즈게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큰 소

리로 책 읽는 것을 듣거나, 음악을 듣거나, 만들기 체험을 하거나, 의자에 앉아서 하는 활동을 위주로 하게 된다.

돌봄농장 환경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돌봄농장의 농업인이나 여타 직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농업인의 리더십, 치매 돌봄에 대한 농업인의 관점, 여타 직원의 역량(예: 창의성, 유연성, 공감 능력, 돌봄에 대한 접근방법, 혁신적인 마음가짐 등) 등이 농장의 돌봄 환경이나 활동을 치매돌봄서비스 제공에 어떤 방식으로 포함되게 할지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에서 수행된 여러 연구로부터, 농업인과 농장 직원이 의미 있는 활동을 아주 잘 조직하고, 치매질환자 개인의 필요에 잘 맞추어내며,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숙련되어 있으며, 참여자의 관여를 촉진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규적인 치매 돌봄 환경과는 대조된다. 정규적인 치매 돌봄 환경에서는 시설이 치매질환자의 관여를 저해한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실내 활동(예: 식사 준비)을 수행하는 직원은 치매질환자의 참여 없이 그런 활동을 수행한다. 게다가 업무 절차 같은 조직 측면의 요인들이 엄격하고 때로는 변경할 수도 없어, 치매질환자가 어떤 활동에 참여하거나 최적의 방식으로 물리적 환경을 사용하는 일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되어 버린다.

돌봄농장처럼 환대하는 분위기가 있고 개방된 환경이 지닐 수 있는 단점은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음식을 조리하거나, 동물을 돌

보거나, 기계 작업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은 위생상태 불량, 알레르기, 낙상 등과 같은 안전성이나 건강 측면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돌봄농장도 정기적인 치매 돌봄 환경과 동일하게 위험이나 안전성 관련 규정을 따르게 해야, 그런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심각한 사고가 보고된 적은 없다.

농장에서 치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 건강 및 웰빙의 관점에서 어떤 이점이 있는가?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에서 수행된 여러 연구에서, 치매질환자에게 돌봄농장이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 편익이 평가되었다. 자연 및 동물과의 접촉, 실외에서 시간 보내기, 활동 참여, 신체 활동, 사회적 상호작용, 건강한 먹거리, 의미 있는 생활 등의 측면에서 돌봄농장이 도움을 준다고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참여자와 그 가족 돌봄 제공자도 치매로 인한 '낙인효과'를 덜 경험한다고 밝혀졌다. 돌봄농장의 환경은 시설이 아니라 '보통'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치매질환자는 인지적·기능적 손상이 있는 환자라기보다는 자원봉사자나 직원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치매질환자는 완전히 인정받고 이해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보고되었으며, 의미있는 기여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진다. 이들 연구는 돌봄농장에서 가족 돌봄 제공자들이 한숨 돌리고 쉬며, 보다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죄책감을 덜 느낄 수 있음을 밝혔다. 이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돌봄농장은 치매질환자 및 그 가족 돌봄 제공자의 건강과 웰빙 측면에서 다양한 편익을 준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돌봄농장의 치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돌봄농장은 치매의 여러 단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정도 또는 중간 정도의 치매질환자에게 성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24시간 요양보호를 제공하는 돌봄농장도 있는데, 치매의 후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치매질환자는 사망할 때까지 농장에 머무른다.

현재 네덜란드에서 성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농장은 인구학적 측면에서 차별화된 고객 집단을 확보한 듯하다. 성인 주간활동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 중 돌봄농장을 찾는 이들의 평균 연령은 상대적으로 낮으며(약 71세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평균 연령은 85세다), 주

거시시설이나 요양시설에 속한 상태에서 성인 주간활동서비스에 참여하는 치매질환자들에 비해 남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돌봄농장이 의도적으로 차별화된 고객 집단을 모으려 노력하지는 않는다. 돌봄농장들은 다양한 성별·연령·배경을 지닌 치매질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 네덜란드에서 24시간 요양보호를 제공하는 돌봄농장과 노르웨이에서 성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농장에 한정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차이는 드러나지 않는다.

돌봄농장을 선택한 치매질환자 및 가족 돌봄 제공자는 돌봄농장의 환경 및 서비스가 정규적인 치매 돌봄시설의 환경 및 서비스에 비해 자신들의 선호(예: 실외에서 시간 보내기, 신체 활동, 텃밭 가꾸기, 동물 돌보기)에 더 잘 맞는다고 언급한 연구도 있다. 농업과 관련된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다. 돌봄농장의 참여자 중에는 시골살이나 농장을 경험한 적이 없으며 농업이 아니라 기술·교육·보건 등의 분야에서 직업 경력을 지닌 이들이 적지 않다. 돌봄농장의 고객 중 어떤 가족 돌봄 제공자들은 돌봄농장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면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나중에 미루거나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의 돌봄농업 발전 과정

〈네덜란드〉

1990년대 이후로, 농업 부문이 다양한 고객 집단을 대상으로 점차 보건 및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늘어났다. 몇 가지 사회적 변화가 작용한 결과다. 농업 부문에 가해지는 압박이 심해지고 사회의 요구가 변화하면서 네덜란드의 농업인들도 새로운 영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휴양관광, 농식품 가공, 돌봄농업 등 농업 활동을 혁신적으로 다각화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한편, 보건 및 사회적 돌봄 분야에서는 (장기적) 돌봄서비스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런 경향과 더불어 기성의 돌봄 환경이 적응하거나 새로운 돌봄 환경을 혁신적으로 설계해야 할 필요가 생겨났다. 돌봄농장이 바로 그 사례다. 결국, 사회와 농촌 지역을 다시 연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돌봄농업은 농장과 농업인에게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부여했으며 취약계층을 사회가 포용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재연결’이라는 필요를 충족한다.

네덜란드의 돌봄농장 수는 빠르게 증가해 1998년에는 75개였던 것이 지금은 1100개가 되었다. 이 같은 돌봄농업 부문의 발전 과정에서 1999년에 ‘국립 돌봄농업 지원센터the National Support Centre

Agriculture and Care'가 설립된 사건이 중요했다. 국립 돌봄농업 지원센터가 수행한 활동에는 돌봄농장 지원, 사회 및 정책 영역에서 농업과 돌봄을 연계하기, 품질관리 시스템 개발, 정보·경험·지식 교류 촉진 등이 있다. 이런 활동들로 인해 건강 및 사회적 돌봄 부문이 돌봄농장을 더 친숙하게 여기게 되고 수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돌봄농장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비용조달 구조도 돌봄농업 부문이 확장되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0년대 이전까지 돌봄농업의 선구자들은 충분한 자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법을 찾았다(예: 노동통합 정책자금, 사회부조 관련 법규, 돌봄혁신 정책자금). 1995년 이후로는 돌봄농장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다른 종류의 자금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가령, 장기 요양 및 돌봄 분야 개인예산제를 위해 마련한 국가의 지원체계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처음에는, 학습장애가 있거나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이 돌봄농장의 주요 고객이었다. 돌봄농장은 이들 고객 집단에게 지원작업장 assisted workplace을 제공하였다. 돌봄농장이 치매질환자 같은 다른 유형의 취약 고객 집단에게도 유익하다는 점이 점차 알려지게 되었다. 돌봄농장에서 치매질환자는 성인주간활동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여러 유형의 농업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돌봄농장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발생하는 소득, 돌봄농장의 평균 직원 수 및 평균 고객 수 등이 증가했다. 돌봄농장들이 모인 지역별 연합 조직도 전국적으로 결성되었고, 돌봄농장이 장기 요양 예산에 접근하고자 할 때 거쳐야 하는 전문적인 지정 절차를 수행하는 조직도 생겨났다.

오늘날 돌봄농장은 건강 및 사회적 돌봄체계 안에 완전히 스며들었고, 지속가능한 재정지원 구조를 발전시켰다. 지금 네덜란드의 돌봄농장은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갖춘 직능 종사자들(예: 농업인, 건강 및 사회적 돌봄 분야 직능 종사자, 사회적 기업가 등)이 주도하는 분야가 되었다. 다양한 유형의 돌봄농장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다양한 고객 집단에 제공한다.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는 1990년대에 최초의 돌봄농업 실천이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호작업장을 제공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여기에 참여한 고객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이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이어서, 노르웨이의 노동복지청the Norwegian Labour and Welfare Administration은 '녹색일터green work'라고 이름 붙인 예비 직업훈련서비스를 항구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점차, 돌봄농장은 그 범위를

확장해 다양한 고객들을 만났다. 지금은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가장 흔한 유형이 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유치원의 아동, 정신건강 상의 특별한 요구나 문제가 있는 사람, 치매질환자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33개의 돌봄농장이 치매질환자에게 성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르웨이에서 돌봄농장의 수를 확인하려 했던 최초의 연구에서는 325개의 돌봄농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중의 연구에서는 대략 650개에서 950개 정도의 돌봄농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2012년에는 국가 수준의 돌봄농장 등록제도가 확립되었는데, 여기에 등록되면 돌봄농장은 품질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제도에 따라 인증된 돌봄농장은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Inn på turet>('농장 안으로'라는 뜻이다)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노르웨이 전체에서 약 400개의 돌봄농장이 이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그 밖의 돌봄농장들이 품질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노르웨이 전체의 돌봄농장 수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돌봄농장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참여하는 고객은 보건 및 사회적 돌봄기관, 학교, 노동복지청의 조회를 거쳐야 한다. 이들 기관에 조회된 고객의 경우, 서비스 비용을 전적으로 지방정부(시)가 지불한다. 돌봄

농장의 농업인은 대부분 '자영업 종사자'이며, 아주 적은 비율의 농업인이 자신의 농장에서 활동하는 돌봄 종사자 또는 교사로서 시청에 고용되어 있다. 최근에는 돌봄농장을 알리고 돌봄농장과 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계약을 촉진함으로써 돌봄농업 부문을 더욱 전문화한다는 목적으로 농업인들이 지역별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도 했다.

전하는 소식

현장 스케치

사회적경제 박람회와 함께한 사회적 농업 성과공유회 및 워크숍

이이수

협동조합 행복농장 거점농장팀

2022년 7월 8~10일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경북 경주에서 열렸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 기업의 상호 교류와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알리는 장이 만들어졌다. 사회적 농업은 7개의 전국 거점농장(경북 청송군 해뜨는농장 농업회사법인, 충남 홍성군 협동조합 행복농장, 전남 영광군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 충북 제천시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 인천 강화군 농업회사법인 콩세알, 전남 완주군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강원 횡성군 언니네텃밭)이 대표로 부스를 운영해 사회적 농업에 대한 개념과 각 관할권역 내 사회적 농장 및 지역서비스공동체형 단체를 소개·안내했다.

7월 9일에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사회적 농업 성과공유회>(10:00~13:30)와 <제1회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워크숍>(15:00~17:00)이 연달아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 동안 진



사진 1 2022년 7월 9일에 진행된 <사회적 농업 성과공유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박은엽 과장이 사회적 농업의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행된 사회적 농업의 성과와 미래를 공유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사회적 농업 성과공유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박은엽 과장의 사회적 농업 정책 방향 소개로 시작됐다.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로 해뜨는농장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을 찾는 청년이 농장 생활과 지역사회를 경험할 수 있게 일상을 함께 보내는 과정을 소개했다. 이어서 농업회사법인 콩세알이 발달장애 아이들을 지역에서 함께 돌볼 수 있도록 강화특수교육지원청과 함께 협력해 만들어가는 돌봄체계를 소개했다. 협동조합 행복농장은 사회적 농업 실천 농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농업을 확대해나가는 사례를 소개했다.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당사자의 목소리로 사회적 농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사회



사진 2 <제1회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워크숍> 단체 사진.

내에 단단한 돌봄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소개했다.

사회적 농업 실천을 통한 성과발표가 마무리 된 후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선임연구위원의 <만남, 환대, 협동, 연대: 사회적 농업의 길, 어디까지 왔는가> 강의를 이어졌다. 이후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 정민철 상임이사가 사회를 맡고, 협동조합함께하는연구소 조미형 박사, 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 한성희 장학사와 사례 발표자들이 패널로 함께한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에는 사회적 농업의 미래와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제언을 나눴다. 사회적 농업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형성해야 할 네트워크 못지않게 각 부처 간의 협력·연대도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고, 보다 다양한 농업·농촌 현장에서 사회적 농업이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

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어지는 <제1회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워크숍>에는 임원 및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에 가입한 대표들이 함께 자리했다. 본 워크숍은 여러 단체가 모여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사회적 농업을 함께하고 있다는 소속감과 연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단한 개회식과 함께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각 권역별 회원사에게 간판 증정식을 진행했다. 증정식이 끝나고, <우리들의 약속 선언>으로 향후 사회적 농업이 실천해야 할 비전 일곱 가지를 정리·제시했다. 뒤이어 <공감 토크 회노애락>을 통해 사회적 농업 실천 현장에서 함께하는 이들의 이야기와 고민을 듣고, 서로의 마음을 다독였다. 교류와 화합을 위한 저녁식사를 끝으로 마무리된 본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연대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농업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현장 스케치

2022년 사회적 농업 콜로키움

박성경

협동조합 행복농장 거점농장팀

2022년 5월 16일 <사회복지 관점에서 사회적 농업의 의미>를 주제로 두 번째 사회적 농업 콜로키움을 진행했다. 발제는 목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영란 교수와 전북 완주군 떡메마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양정숙 원장이 맡았다.

김영란 교수는 사회적 농업과 사회복지에 대해 발제했다. 김영란 교수는 “사회적 농업은 제대로 된 사회복지를 실천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 또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농업은 대안적 사회복지가 될 수 있고, 사회적 관계 실천이 어려운 사회복지사에게 훈련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다. 농장에서 일할 복지사가 없는 현실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회복지와 사회적 농업의 공동 지향에 바탕을 두고 농장 활동의 의미를 찾자. 사회복지사가 농장에서 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권 밖에서 다양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해보자”는 의견을 냈다.

양정숙 원장은 사회복지 관점에서 사회적 농업의 확장에 대한 발제를 했다. 사회와 사회복지의 개념부터 가치 및 의미를 설명하며, 영농 사업단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사례를 통한 사회복지 현장의 사회적 농업 접근 사례를 소개했다. 양정숙 원장은 “사회적 농업을 지역사회에서 주체로서 함께 살아가게 하는 사회 통합의 의미로 넓게 바라봐야 한다.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경계를 허무는 연대와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콜로키움은 6월 20일 <농업·농촌 관점에서 사회적 농업의 의미>를 주제로 진행했다. 발제는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 김자경 교수와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 정민철 상임이사가 맡았다.

김자경 교수는 사회적 농업을 농업·농촌의 대안으로 보는 시각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과제와 일본의 농복연계(農福連携) 사례, 제주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김자경 교수는 “사회적 농장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편하게 일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구조와 지역사회와 쉽게 연계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된다. 또한 사회적 농업은 농업·농촌의 방식인지 복지의 방식인지 혼동되고 있으며, 돌봄의 시장화와 돌봄 운동의 사이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김자경 교수는 “특히 지역서비스공동체형 사업은 리모에 거주하는 농민과의 거리감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돌봄의 사회화’라 미화하다 보면 ‘바우처’ 같은 돌봄의 시장화로 이행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말

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이어지는 발제에서 정민철 상임이사는 농업의 기능 회복과 사회적 농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민철 상임이사는 “시대에 따라 농업을 규정하는 개념이 달라지고 있으며, 농업은 사회·환경적 기능을 줄이고 경제적인 기능을 극대화 시키는 쪽으로 발전해왔다. 이런 규정을 바꾸는 것이 사회적 농업이 되었으면 한다”고 이야기하며, 농업의 사회적 기능을 경제적 기능으로 치환하지 말자는 것을 강조하고 사회적 농업의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정민철 상임이사는 “가장 먼저 개별 농장간의 연결을 복원해야 하며, 농장과 농촌 마을을 연결하고, 농업을 통해 먼단위의 다양한 기관들을 연결시켜야 한다. 도시야말로 사회적 농업이 필요한 곳이며, 도시와 농촌간의 연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한국형 사회적 농업은 어떤 모습이 바람직한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등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눴다. 지역 농업과 지역 복지, 마을만들기의 공통점을 찾아 연결해보자고 하거나, 사회복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농업 매출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공공재원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통적으로 농업의 경제적 측면에 매몰되어 사회적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길 바라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사회적 농업 콜로키움은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다음 사회적 농업 콜로키움은 8월 22일에 <사회적 농업의 유익과 실천 경험(정신장애, 발달장애)>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현장 스케치

2022년 사회적 농업 공동 연수

— 세대별 노인, 청년, 아동

박성경

협동조합 행복농장 거점농장팀

2022년 5월 12일, 사회적 농업 공동 연수 세 번째 교육이 <노인문제와 사회적 농업>를 주제로 열렸다. 한국농촌연구원 김정섭 선임연구위원의 공동교육과 목포대학교 김영란 교수의 <노인문제와 사회적 농업> 강의가 있었다.

김영란 교수는 노인에 대한 정의부터 노인의 특징, 노인을 둘러싼 대표적인 담론 등을 설명했다. 김영란 교수는 “노인문제는 노인 개인이 가진 문제가 아닌, 걱정 없는 노후를 지낼 수 없게 하는 정부 또는 사회의 문제라고 정의한다. 노인과 관련된 세 가지 담론으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선량한 편견’, ‘나이든 보통사람으로 보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가 있다. 위 세 가지 담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배시민’ 담론을 제시한다. 노인의 능력과 특징은 모두 다르므로 그 세대 맥락으로, 나이든 보통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은 지역사회의 일에 주체로 참여하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농업은 노인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노인의 속도에 맞춰 정서적 안정감을 주어 사회적으로 통합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진 1 2022년 5월 12일에 진행된 세 번째 사회적 농업 공동연수 <노인문제와 사회적 농업> 공동교육 단체사진

고 이야기했다.

실제 워크숍 시간에는 전남 영광군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 강원 횡성군 언니네텃밭, 전북 임실군 선거웰빙푸드영농조합법인의 사례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사회적 농업 공동 연수 네 번째 교육은 2022년 5월 19일 <청년문제와 사회적 농업>을 주제로 진행했다.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 정민철 상임이사가 강의를 맡았다. 정민철 상임이사는 “농업의 개념과 사회적 수요의 변화로 사회적 농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농업을 어떻게 청년에게 접근하고 정착시킬 것인지가 중요하다. 청년을 단지 생산성을 높이는 노동자로



사진 2 2022년 5월 19일에 진행된 네 번째 사회적 농업 공동 연수 <청년문제와 사회적 농업> 중, 정민철 상임이사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지 말아야 한다. 청년은 노동을 하지만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청년에게 여러 기회와 체험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농촌의 목표는 청년 농업인 양성이 아니다. 농촌에 사는 청년이 나와야 하고, 또, 청년은 사회적 농업으로 농사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을 배워 지역사회의 필요와 하고 싶은 일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 또한 청년은 농장을 벗어나 마을, 면 단위로 시각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워크숍 시간에는 충북 제천시 농업회사법인청년마을, 경북 청송군 해뜨는농장, 전남 곡성군 향꾸네협동조합의 사례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사회적 농업 공동 연수 마지막 교육은 2022년 5월 26일에 <아동문제와 사회

적 농업>을 주제로 진행했다. 공통교육 후 <아동과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 활동>을 주제로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소 조미형 박사의 강의가 있었다. 조미형 박사는 아동에 대한 이해로 시작해,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농업 현장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아동을 만나야 하는지 설명했다. 조미형 박사는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에서는 전인적·통합적으로 아동을 바라봐야 한다. 사회적 농장은 작은 지역사회로서 아동에게 다양한 어른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실제 경험을 통해 학습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자기 효능감을 구축할 수 있고 다른 일도 도전할 수 있는 성취감을 향상시킨다. 사회적 농업의 효과는 성과가 아닌 실적으로 보아야 한다. 가령 사회적 농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은 몇 명인지 등을 조사해 확장된 관계를 직접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또한 지표로 측정이 어려운 아동의 표정이나 행동 변화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실제 워크숍 시간에는 지역 아동·청소년기관과 연계하는 충남 논산시 뽕큐베리팜, 충북 제천시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의 마을 배움터 프로그램, 전남 해남군 야호해남 영농조합법인의 문화 예술 활동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번에 진행된 공동 연수 주제에 대한 심화교육이 있을 예정이다. 공통교육 이후 관심이 있거나 실천 현장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위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장 스케치

2022년 대전·충남권 사회적 농업 공동학습모임

다가오는 여름을 느끼며, 함께 공부하고 동행합니다.

박성경

협동조합 행복농장 거점농장팀

2022년 5~6월, 대전·충남권 사회적 농업 공동학습모임이 있었다. 6차 공동학습모임은 5월 24일 충남 논산시 땡큐베리팜에서 진행했다. 주제는 <농업과 돌봄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까?>였으며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 권혁범 대표가 강의를 맡았다. 이번 모임에는 대전·충남권 사회적 농장 및 지역서비스 공동체형 사업 대표자와 실무자, 대전·충남권 사회적 농업 담당 공무원 등 22명이 참석했다.

권혁범 대표는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이 노인 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와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의 실천 사례와 복지사회에서 공동체의 역할, 기존 공동체 중심의 여러 정책과 그 한계를 지적했다. 권혁범 대표는 “시범 사업은 주민력을 강화하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또, 농촌복지 활동은 자주성과 공생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되면서 공적 시스템과 주민의 결합이 필요해졌다. 관련된 지역 사안으로 지역주민이 책임을 갖고 결정할 수 있는 ‘주민주권’과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



사진 1 사회적 농업 5월 공동학습모임에서 실천 사례를 공유한 땡큐베리팜에서 블루베리 묘목을 옮겨심는 활동을 함께했다.

가 중요하다. 공동체는 결국 시장과 복지국가의 한계로 소환되었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형 생활돌봄 등 여러 정책 사업이 존재하지만 주 수익모델이 없는 경우에는 재원 마련이 어렵다. 또, 생업을 제쳐두고 지속적으로 복지 활동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유지도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강의 후 땡큐베리팜 최선희 코디네이터의 실천 사례 발표와 농장에서 준비한 분갈이 체험활동이 있었다.

7차 공동학습 모임은 6월 21일 충남 공주시 샘여울(유)에서 진행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 알기>를 주제로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 정민



사진 2 샘여울에서 공동학습모임을 진행했다.

철 상임이사가 강의를 맡았다. 모임에는 기존 참여자와 사회적 농업 준비 농장 2곳 등을 포함해 26명이 참석했다.

정민철 상임이사는 강의에서 농업의 개념 변화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농촌의 현실을 짚었다. 정민철 상임이사는 “사회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경제적 기능만이 남아있으며 농민은 여전히 수확량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농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농가의 56%가 연수입 1,000만 원 미만이다. 자급률 유지가 중요하지만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대부분의 농가에게 불가능하다. 농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른 농장·마을·지역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을 같이 하며 분리된 농업과 농촌을 이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 정민철 상임이사는 홍성군 장곡면의 현황과 평민마을학교,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 협동조합 행복농장의 네트워크 구조를 소개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민이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 후 샘여울(유) 이숙길 대표의 실천 사례 발표와 농장에서 준비한 연잎냉면 체험을 진행했다. 모임을 통해 농촌에서의 연대와 협력,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었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을 받은 지역서비스공동체형 단체들이 목표를 구체화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상상은 하면 할수록 구체적여지고, 현실적으로 변한다고 믿는다. 남은 공동학습모임도 사회적 농업의 미래를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향후 일정 안내

◆ 협동조합 행복농장

❖ 2022년 대전·충남권 제9·10차 공동학습모임

– 제9차 / ‘사회적 농업 5년 이후 준비하기’

* 일시 / 2022년 8월 23일 10:00 ~ 12:00

* 강사 / 이은경(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

* 장소 / 천안시 실아트

– 제10차 / ‘사회적 농업형 경관조성에 대해’

* 일시 / 2022년 9월 20일 10:00 ~ 12:00

* 강사 / 최정선(협동조합 행복농장)

* 장소 / 청양군 나눔영농조합법인

– 대상 / 대전·충남권 사회적 농업 실천가 및 관련 지자체 공무원, 사회적 농업에 관심있는 자

– 내용 / 함께 사회적 농업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전문가에게 교육을 듣고, 사회적 농업 실천 경험을 공유합니다.

❖ 제2차 대전·충남권 민·관 간담회

– 일시 / 2022년 9월 중 진행

– 대상 / 대전·충남권 사회적 농업 실천가 및 관련 공무원, 사회적 농

업에 관심 있는 자

– 내용 / 2022년 상반기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며 현장에서 느꼈던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공유합니다. 2023년 사회적 농업 사업설명과 실천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

❖ 2022년 제4·5차 사회적 농업 콜로키움

– 제4차 / ‘사회적 농업의 유익과 실천 경험(정신장애, 발달장애)’

* 일시 / 2022년 8월 22일

* 강사 / 최정선(협동조합 행복농장), 이효주(완주소설굿즈센터)

– 제5차 / ‘사회적 농업의 유익과 실천경험(노인)’

* 일시 / 2022년 9월 19일

* 강사 / 이은경(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 이숙자(언니네텃밭)

– 장소 / 온라인 ZOOM

– 대상 / 사회적 농업에 관심있는 실천가

– 내용 / 콜로키움은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정의 및 성과와 향후 방향성, 실천 사례를 함께 나누고, 정리해가는 전문가 집담회입니다. 사회적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추후 유튜브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 2022년 제 2기 3회차 심화워크숍

사회적 농업 실천의 농촌사회 네트워크 설계

농촌사회에 기반을 두고 지역농업과 농촌복지를 연계시키는 상상력

- 일시 / 2022년 8월 24일(수) 14시 ~ 8월 25일(목) 17시
- 장소 / 오누이다목적회관(충남 홍성군 장곡면 홍남동로 473번길 79-22)
- 강사 / 김정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구자인(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소장)
이효진(사회적협동조합 완주군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이사)
신소희(홍성군 장곡면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 신청기간 / 2022년 8월 5일(금)~19일(금)
- 참가대상 /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등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공무원, 활동가 등
(총 20명 선착순 마감(1개 시·군당 4명 이내))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maecul1505@gmail.com로 제출
- 문의 / 041-641-1505, 010-2459-4482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이권윤정 책임연구원
- 참가비 / 1인당 45만 원
(3회 연속 신청자 및 행정 예산 지원이 없는 참가자는 20% 할인)
- 보다 자세한 세부계획과 신청방법은 다음 링크 또는 QR코드를 참

고 바랍니다.

* 링크 / <https://gofile.me/6cFqX/omLIXmgwg>



- 일정

* 8월 24일(수)

- 심화워크숍 취지 / 한국 농촌정책의 민관협치와 지역 네트워크
구자인(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소장)
- 강의 1 / 사회적 농업이란 무엇인가?: 개념과 국내외 사례
김정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강의 2 / 국내외 사회적 농업 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
- 연습 / 우리 지역의 사회적 농업 관련 정책 파악하고 정리하기
- 저녁 교류회 / 우리 시군의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

* 8월 25일(목)

- 강의 3 / 사회적 농업 실천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형성
- 연습 / 공동학습 과정 및 시범 프로젝트 구상
- 강의 4 / 사회적 농업의 확장: 지역사회 주도형 사회서비스 구상
- 연습 / 기획자 또는 조직가가 해야할 과업의 목록과 순서 정하기
- 사례 1 / 완주군 사회적 농업의 확장과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효진(사회적협동조합 완주군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이사)
- 사례 2 / 장곡면 사회적 농업 실천과 함께하는장곡 사회적협동조합
신소희(홍성군 장곡면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 종합토론 /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를 둘러싼 쟁점과 발전 방향

사회적 농업의 실천과 담론을 전하는

사이통신 8

펴낸 날	2022년 8월 8일
펴낸 곳	(사)한국사회적농업협회
펴낸이	사회적농업거점농장협의체, 협동조합 행복농장
글쓴이	김자경, 박성경, 이이수, 이효진, 임경화, 홍진웅
간지 사진	김세빈
제작	시골문화사